우리 만화의 밑그림 제공하는 자료본부

'우리 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 모임' 자료실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을 따르기라도 한듯 방앗간 지하에 마련된 '우리 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회장 박재동, 이하 '우만연') 사무실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넘친다. 자료실 천정과 곳곳에 쌓여 있는 만화책 뭉치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만연' 회원들은 무심하다. 그 책뭉치 바로 밑에 놓인 탁자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서가에서 뽑아든 만화책을 펴들고 공부 아닌 공부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위기감과 심란한 무질서가 우리나라 만화계의 현실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자료실 천정까지 쌓여 있는 만화책 덩어리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 회원들은 무심히 그 밑 탁자에 앉아 회의를 하고 서가의 자료를 뽑아 공부하기도 한다. 중진작가들이 소장도서를 아낌없이 내놓으며 모은 자료가 7천여권 남짓. 우리나라 만화역사에 밑그림이 되는 진귀한 자료들이다.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의 자료실.

사명감으로 모은 자료들

"남들이 보기에는 한갓 만화에 불과하겠지만 이만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우만연' 회원들은 시간 뿐 아니라 물질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료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홍(28)씨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벌어들이는 원고료를 거의 자료 사 모으는 데 썼고, 박재동·이희재·김형배 등 '우만연' 창립에 주축이 된 중진작가들은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이희재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헌 만화책을 가득 싣고 가는 차를 보고 통째로 사서 '우만연' 사무실로 보낸 얘기는 유명합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가 7천여권 남짓. 이 가운데는 전국을 뒤져도 찾지 못할 진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이종수 사무국장(38)은 말한다. 1950~60년대에 나온 김종래의 《엄마 찾아 삼만리》, 김용환의 《만화 삼국지》, 《코주부 삼국지》, 또 우리나라 첫 공상과학 만화로 최근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산호의 《라이파이》는 복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 만화 역사를 그리는 데 밑그림이 되는 것들이다.

오래된 만화를 모으는 데 힘쓰는 편이지만, 요즘 만화나 만화를 그리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과 자료를 모으는 데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 100여개나 되는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 프랑스 포스터 분석책, 중국과 일본의 만화교본, 한국문화상징사전도 '우만연'이 구비하고 있는 자료다. 그간 '우만연'이 작업한 얇은 비평집이나 팜플렛도 단행본 작업을 위해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어려운 이유는 자료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1년에 발행되는 만화종수가 얼마나 되는지, 만화가는 모두 몇 명인지조차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요."

일과성 행사보다 기초 투자가 중요

일본의 경우는 만화에 관련한 통계가 아주 정확할 뿐 아니라 유통경로가 투명해 정책수립이나 정부지원이 원활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만화산업정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근 사회면을 장식한 만화가 소환 조사만 보더라도 정부의 만화정책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지 읽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검열과 만화가 소환이 일어나는 한편에서는 만화산업의 미래지향성을 운운하며 국제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7월부터 10월 넉달 사이에 개최되는 만화관련 국제행사만도 5개, 책정된 정부예산은 50억원이 넘는다.

"떠들썩한 일과성 행사보다 자료수집, 정확한 통계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민간단체들이 모아둔 자료라도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됐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만화가협회 등 국내 12개 만화단체들이 연합하고, 젊은 만화인들의 모임이 활성화된 것을 '우만연'은 만화계가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 얻은 성과로 여긴다. 만화인들의 한 목소리가 아니고서는 작은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화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 이현주 기자

한글출력의최고봉삼화전산 한글96
2도/4도 분판출력